

입당송 | 말라 3,1; 1역대 29,12 참조

보라, 만군의 주님이 오신다. 그분께 나라와 권능과 권세가 있다.

제1독서 | 이사 60,1-6

화답송 | 시편 72(71),1-2.7-8.10-11.12-13(© 11 참조)

◎ 주님,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경배하리이다.

○ 하느님, 당신의 공정을 임금에게, 당신의 정의를 임금의 아들에게 베푸소서. 그가 당신 백성을 정의로, 가련한 이들을 공정으로 다스리게 하소서. ◎

○ 저 달이 다할 그때까지, 정의와 큰 평화가, 그의 시대에 꽃피게 하소서. 그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땅끝까지 다스리게 하소서. ◎

○ 타르시스와 섬나라 임금들이, 예물을 가져오고, 세바와 스바의 임금들이, 조공을 바치게 하소서. 모든 임금들이 그에게 경배하

고, 모든 민족들이 그를 섬기게 하소서. ◎

○ 그는 하소연하는 불쌍한 이를, 도와줄 사람 없는 가련한 이를 구원하시이다. 약한 이, 불쌍한 이에게 동정을 베풀고, 불쌍한 이들의 목숨을 살려 주나이다. ◎

제2독서 | 에페 3,2.3-5-6

복음환호송 | 마태 2,2 참조

◎ 알렐루야.

○ 우리는 동방에서 주님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

복음 | 마태 2,1-12

영성체송 | 마태 2,2 참조

우리는 동방에서 주님의 별을 보고, 예물을 가지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염수정 안드레아 추기경 | 서울대교구장

| 그 별을 보고 더없이 기뻐하였다

서울에서는 별이 잘 안 보입니다. 서울에서 별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조명이 너무 밝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서울에서도 밝은 별은 얼마든지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별이 안 보이는 이유는 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주의 신비는 모두 다 밝혀지지 않아서 우주에 존재하는 별의 숫자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그 많은 별 중에서 그분의 별을 발견하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천 년 동안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엄청난 핍박과 고통의 삶 속에서도 꿋꿋하게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자신들을 구원할 구세주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복음에 보면 구세주인 예수님께서 태어난 것을 가장 먼저 알아본 사람들은 역설적이게도 머나먼 지역에 살고 있는 동방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마태 2,2) 동방 박사의 말을 듣고 헤로데 임금을 비롯하여 온 이스라엘은 큰 혼란에 빠집니다. 동방박사들은 아주 먼 곳에 있었지만, 구세주의 별을 보았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합니다. 지척에 있던 유대인들은 그분의 별을

보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왜 별을 못 보았을까요? 혹시 너무 가까이 있어서였을까요? 아니면 욕심에 눈이 어두워졌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분의 별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쩌면 손이 닿는 가까운 곳에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 가족, 친지, 혹은 나의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구세주께서 다시 태어나실 곳, 베들레헴은 바로 지금, 여기입니다.

우리는 무수히 많은 별들 중에 구원으로 이끄는 별을 찾아야 합니다. 물론 저절로 찾을 수는 없습니다. 동방박사들처럼 많은 수고와 노력이 따를 것입니다. 다행히 예수님께서 당신을 진리요, 길이라고 가르쳐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을 보고 그분을 따라간다면 영원한 생명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발 더 나가서 우리 자신도 다른 이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분의 별이 되어야 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은 “주님을 찾는 방법은 네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즉 구세주이신 주님은 우리 사이에 계시고, 우리 마음 안에 자리 잡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느님을 알아보아야 하며, 오로지 하느님께만 모든 희망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올 한해 나와 이웃 안에서 그분의 별을 발견하기를 소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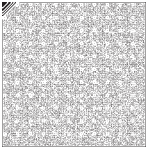
샤르첼릭, 키르기스스탄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마태 2,2)



동력이 차단된 고산의 밤하늘은 빈틈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별들로 가득합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오로지 ‘그분의 별’만을 바라보며, 혹독한 사막의 길을 걸었을 박사들의 여정을 떠올려 봅니다. 화려한 욕망의 불빛들이 가득한 세상만을 핑계 삼아 온 자신을 반성하면서, 오늘은 불 꺼진 성당 한편에서 기다리고 계실 ‘그분의 별’을 찾아 조배를 다녀와야겠습니다.

장은미 베르나디아 | 가톨릭사진가회



이문수 가브리엘 신부 | 청년밥상 문간 대표

|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사실 저는 책을 읽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조용히 묵상하며 느낀 것들을 사람들과 나누는 것을 좋아합니다. 마치 책상물림 같달까요. 부끄럽지만 제 성향은 입으로만 떠들기 좋아하는 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몸을 사리지 않고 봉사하시는 분들을 존경합니다. 이런 제가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는 게 스스로 생각해도 기이하네요.

저는 정릉시장 안에서 ‘청년밥상 문간’이라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는 식당이지만 무엇보다 주머니가 가볍기 마련인 청년들이 부담 없이 밥이라도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저희 글라렛 선교 수도회에서 설립했답니다. 2015년 여름 서울의 한 고시원에서 생활고에 굶주림과 질병으로 세상을 떠난 청년에 대한 뉴스가 떠들썩하게 보도되었습니다. 가슴 아픈 뉴스를 접하신 전교 가르멜 수녀회의 강 세실리아 수녀님께서서는 청년들을 위한 식당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고, 우여곡절 끝에 저에게 청년들을 위한 식당을 만들어 달라고 제안 아닌 제안을 하셨습니다. 저 또한 안타까운 뉴스에 가슴 아파했었기에 수녀님의 제안에 공감했고, 그 날 저녁 수도회의 신부님들에게 전했다니 모두 찬성하셔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수도회는 저를 가칭 ‘청년 식당’의 책임자로 임명하였고 저는 험난한(?) 장사의 길로 접어들게 된 것이죠. 그렇게 시작된 식당은 2017년 12월에야 영업을 시작할 수 있었으니 느긋함이라 포장하는 저의 게으름과 책상물림 같은 기질로 인해 준비 시간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식당을 시작하고서 뜻하지 않게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분에 넘치는 칭찬도 들었습니다. 언론과 인터뷰라는 것도 했고요. 어느 기자님께서 평소엔 요리를 좋아하고 청년들을 많이 생각하셨느

냐고 질문하셨는데, 문득 ‘내가 어쩌다 이 일을 하게 되었지...’ 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밝힌 대로 저는 몸을 쓰기보다는 입만 쓰는 걸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저의 성향대로라면 관구장 신부님께서 청년 식당의 책임자로 임명하셨을 때 자연스레 거절했을 테니까요. 식당 일이란 게 할 일이 태산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느님께 흘렸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씨시의 프란치스코 성인께서는 관상 생활을 원하셨다고 합니다. 반면에 글라라 성녀께서는 만방에 두루 다니며 복음 선포를 바라셨다고 하죠. 그러나 우리들이 익히 아는 대로 두 분은 반대의 삶을 사셨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리 이끄신 것이죠. 감히 두 분의 삶에 저를 비하려는 건 아닙니다. 다만 하느님께서 제가 좋아하고 익숙한 삶에 놔두시지 않고 반대의 삶으로 내몰으신다고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1년, 짐작조차 못 했던 코로나19의 세상을 보낸 우리에게 올해 주님께서 무엇을 마련해 놓고 계실까요. 확실한 것은 제가 원하고 좋아하는 것만 준비하시진 않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기쁘게 받아들이자고 다짐해 봅니다.

를 이루는
나를 이끄는
성경구절

개어있어라
너희가
그날과그시간을
모르기때문이다-
마태 25.13

차예지 헬리나
삼각지성당



「사랑의 손길」은 '천주교 서울대교구'와 '한마음한몸운동본부'가 함께하는 국내외 지원사업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내외 가톨릭 사회복지단체를 후원합니다.

가나 희망 교실 프로젝트

“

아피아, 학교가자

”



안녕하세요! 저는 가나 카나수아 마을에 있는 삼위일체(Holy Trinity) 학교에서 활동하고 있는 마리아 벌마 수녀입니다. 저희 학교는 아프리카 가나의 수도 아크라에서 약 400km 떨어진 작은 시골 마을 카나수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농업이나 일용직 일거리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병원 같은 보건시설도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 경제적,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어려움이 많은 지역입니다. 특히 요즘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 2014년 어린 유아들을 대상으로 유아 교육을 진행하면서 시작하였습니다. 유아 교육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마을의 부모들이 생계를 위해 일을 하러 나가면 집안에 방치된 채 돌봄을 받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아이들을 돌볼 수가 없기에 저희 수녀회에서는 정말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합니다. 지금은 그 아이들이 성장하여 초등학생이 되면서, 초등교육까지도 확대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학교에 대한 평판이 좋아서 마을의 많은 사람들이 저희 학교에서 아이들이 지속해서 교육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배우고 싶어 학교에 다니려는 아이들은 늘어나지만, 교실이 부족해 더 이상의 아이들을 감당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학교 운영을 위해 최소한으로 받고 있는 적은 학비조차도 가난한 부모들은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교실을 늘리는 것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그들에게 더 요구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더구나 요즘은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규제 정책 영향으로 많은 상점과 사무실 등이 문을 닫았고, 마을을 돌며 식료품이나 생필품을 판매하는 사람들조차도 찾아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일용직으로 생계를 이어가던 사람들은 일거리를 구할 수 없어 가난한 이 마을 사람들이 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가장 취약한 아이들의 끼니가 걱정입니다. 학교에 나오는 아이들의 경우 수녀회에서 하루 한 끼라도 영양 있는 급식을 제공하고, 또 학교조차 다닐 수 없는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는 먹을 것을 나누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지속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생계를 위해 방황하지 않고 학교라는 안전한 울타리에서 건강하게 미래를 꿈꿔가며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충분한 영양식을 나누고 아이들이 교실에서 행복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을 모아주세요.

마리아 벌마 수녀 | 가나 성령선교수녀회

‘가나 희망 교실 프로젝트’는 총 사업비 7,260만원 모금을 목표로 한마음한몸운동본부가 펼치고 있는 나눔 캠페인입니다. 모아진 후원금은 한마음한몸운동본부를 통해 가나 삼위일체(Holy Trinity) 학교에 전해져 아이들에게 든든한 영양식을 제공하고,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교실을 추가 건축하는 활동에 지원됩니다. 총사업비를 초과하여 모아진 후원금은 한마음한몸운동본부의 ‘지구촌 빈곤 퇴치’ 사업에 지원 됩니다.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5-180-003488 (재)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2021년 1월2일~2월5일까지 위의 계좌로 후원해 주시는 후원금은
‘가나 희망 교실 프로젝트’를 위해 쓰여집니다.

서울주보 홈페이지(cc.catholic.or.kr)에서 지난 사연을 볼 수 있습니다. 기부는 소득공제 받으시는 분의 이름으로 입금해 주시기 바라며, 기부내역 누락 방지를 위해 무통장입금 후 바로 기부금 영수증을 신청해 주세요. 2021년 1월 1일까지 후원해 주신 후원금은 (재)바보의 나눔(문의 : 02-727-2501)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 드립니다.



오늘(1월 3일)은 ‘주님 공현 대축일’입니다

‘주님 공현 대축일’은 동방의 세 박사가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간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를 통하여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탄생이 공적으로 드러납니다. 한국 천주교회는 매년 1월 2일과 8일 사이의 주일에 이 축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성 요셉의 해’ 선포(2020년 12월 8일~2021년 12월 8일)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 12월 8일(화)에 ‘성 요셉의 해’를 선포하고, 가톨릭교회는 앞으로 1년간 특별한 방법으로 요셉 성인의 삶과 영성을 기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교황은 이날 발표한 교서 『아버지의 마음』(Patris corde)을 통해 “모든 신자가 성 요셉의 모범을 따르고, 하느님의 완전한 충실성 안에서 신앙적 삶을 강화하길 바라며” 성 요셉의 해를 선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1963년 1월 7일 김영식 베드로 신부(54세)
- 2000년 1월 5일 박은중 요한 신부(40세)
- 2015년 1월 8일 최용록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신부(87세)

1월 10일(일)은 ‘주님 세례 축일’입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밤 9시 주모경 바치기 운동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밤 9시 주모경 바치기’에 동참해 주십시오.

- ① 밤 9시에 한반도 평화를 위한 주모경을 바친 후 “평화의 모후, 한반도 평화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평화의 모후, 세계 평화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를 바칩니다.
- ② ‘평화를 구하는 기도’ 또는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가톨릭기도서 109쪽)를 함께 바칠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종교시설 방역지침 안내

- ❶ 정규 미사 봉헌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합니다.
[영상 제작 및 송출 인력 포함 20인 가능]
- ❷ 성당 내에서 대면 모임과 활동 및 행사, 음식 제공과 단체 식사는 금지합니다.
- ❸ 성당 밖에서 하는 식사는 자제합니다. (5인 이상 금지)

“나를 이끄는 성경 구절” 손글씨 공모전

2021년 서울주보 코너 「나를 이끄는 성경 구절」 손글씨 공모전(2020년 11월 1일~30일)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총 198편의 작품이 접수되었으며, 52편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당선 되신 분들께 개별 연락을 드릴 예정입니다) 다시 한 번 참여해주신 모든 신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서울주보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선정된 작품은 접수 순대로 서울주보에 게재됩니다.**

당선자

차예지 헬리나 김민정 소환데레사 정혜윤 프란치스코 권윤혜 로사 손태복 브루노 박혜영 아녜스 조영연 마리아 허운선 아녜스 최보라 비비안나 정혜선 마틸다 박지현 수산나 신서영 라파엘라 유정희 노엘라 김효식 엘리사벳 윤예지 에밀리아나 이현정 아미카 이종은 아녜스 이미경 마르타 이문진 데보라 강인자 안나 이희은 엘리사벳 강석자 가브리엘라 김선화 세실리아 강민주 베로니카 임향 골롬바 최명숙 막달레나 박철 베네딕도 이은영 살로메 장혜란 마르타 오현숙 베로니카 정은희 마리아 이경성 요셉 박재은 율리아나 김수연 크리스티나 차경숙 베로니카 박문정 다프루사 강재은 벨라렛타 김태라 루칠라 김선중 마리아엘라 김미혜 베레나 김경희 아녜스 유임봉 스테파노 김태성 다니엘 김지현 엘리사벳 김경선 누실라 김지우 크리스티나 김정숙 노엘라 정은숙 수산나 김여종 피아 김어진 스테파니아 임국희 마리아 장자윤 정혜엘리사벳

교구창일림

순교자현양 신심미사

때: 매일 첫째주(화) 1월5일 · 2월2일 오전 10시
곳: 절두산 순교성지
문의: 02)2269-0413 순교자현양위원회

사회교정사목위원회 미사 취소 안내

사회교정사목위원회 1월 후원회원 월례미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없습니다 비록 모여서 미사봉헌하지는 못하지만, 교정사목위원회 신부들이 언제나 후원회원님들을 기억하며, 건강과 가정의 평안을 지향으로 미사와 기도 드리고 있습니다 / 문의: 02)921-5094

1월 자살유가족을 위한 월례미사 안내

대상: 자살로 소중한 사람을 잃은 모든분들
때: 매일 세번째(토) 1월16일(토) 10시30분
곳: 가톨릭회관 4층 413호(명동)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유가족 면담 및 문의: 02)727-2495

경찰사목위원회 선교사 양성교육(2021-1차 교육생 모집)

대상: 경찰사목 선교사활동에 관심 있는 견진성사를 받은 교우
교육기간: 2월3일~6월30일 매주(수) / 20주 과정
교육장소: 가톨릭회관(명동) / 회비: 10만원
신청기한: 1월29일(금)까지
문의(접수): 02)742-9471, 3 경찰사목위원회 교육센터
경찰사목 선교사 활동 및 교육과정은 홈페이지(www.catholicpolice.or.kr) 참조

갤러리1898 휴관안내 / 문의: 02)727-2336

휴관일정: 1월6일(수)~2월2일(화)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관련 온라인 설명회

대상: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에 관심 있는 본당, 수도회, 신자 / 내용: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와 지자체 보조금 지급에 관한 안내
때: 1월13일(수) 14시~16시
신청: <http://bit.ly/3nj16rC>(1월10일(일)까지 온라인 신청 필수) / 문의: 02)727-2272, 2283 환경사목위원회(ecocatholic@hanmail.net)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에서는
6.25 전사자와 유가족을 찾고 있습니다

문의: 1577-5625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수도회 상소모임	때	곳	문의
마리아의 작은 자매회	수시	본원(중구 장충동)	010-4545-0578(www.lcm.or.kr)
성 베네딕도회 왜관 수도원	매월 둘째주(토) 15시~(일) 13시	본원(경북 왜관)	010-8353-2323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 사랑의 딸회	1월16일(토) 14시	성 빈첸시오의 집 요양원(경기도 양주시)	010-6625-0927
작은예수수녀회	수시	수녀원(군자동)	010-8939-7970
한국의방선교수녀회	1월10일(일) 14시	보문로27길 20	010-9353-1773 노아 수녀

인준단체 알림

모임

이나시오 생활 피정·영적상담·성사·성소 상담
다음카페: 하비엘 영성학교(주최) / 문의: 010-2310-9432

콜롬반 평신도선교사 관심자 모임(해외선교)

대상: 24세~40세 신자 / 문의: 010-3817-0567
때, 곳: 1월10일(일) 14시~17시, 평신도선교사센터
(전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1번 출구) / columban.or.kr

제주 면형의 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도회 수사들과 함께 제주성지·역사·평화순례·미사(성무일도), 나눔, 올레길·오름 트레킹
한라산눈꽃피정: 1월23일~25일, 1월29일~31일, 2월5일~7일, 2월20일~23일, 2월27일~3월1일
문의(접수): 02)773-1463, 064)756-6009

효소단식 성체신심 치유 피정(가톨릭 교수회)

내용: 공복감 없는 효소단식으로 면역력도 올리고 성체신심의 은혜로 영육간의 건강과 자연치유력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피정 / 회비: 36만원(단식 효소비 포함)
지도: 토마스 모어 원장 신부 / 문의: 010-9916-5798 신부, 010-9363-7784 신 글라라
때, 곳: (금~월) 1월8일~11일·1월15일~18일·2월19일~22일, 성 도미니코수도원(수유동)

베네딕도회 성경통독 8일 단식 피정

곳: 성 베네딕도회 화순 수도원(http://hsosb.or.kr)

제85차	1월22일(금)~30일(토)	문의: 061)373-3001,
제86차	2월5일(금)~13일(토)	010-3540-9001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예수마음선교수녀회)

곳: 예수마음 피정의 집(문산) / 지도: 권민자 수녀
문의(접수): 010-4906-5722, 031)953-6932

1박2일	1월9일(토)~10일(일), 3월27일(토)~28일(일)
3박4일	1월14일(목)~17일(일), 2월26일(금)~3월1일(월)
8박9일	1월31일(일)~2월8일(일)-신학생, 2월16일(화)~24일(수)
40일	4월6일(화)~5월15일(토)

교육

신구약 성경통독 / 문의: 010-9401-9374
때, 곳: 2월19일~27일(8박9일), 상지 피정 집(주최)

미사반주법 및 묵상곡을 위한 오르간 교육

때: 1월11일(월) / 문의: 02)338-3793

주최: 아퀴나스오르간연구소

CaFF영화제작워크숍 11기 모집

때: 3월2일(화)~6월12일(토) 매주(화) 18시30분~21시
(14주간) / 문의: 0507-1424-0712 가톨릭영화인협회
회비: 40만원(실습비 포함) / 접수는 홈페이지(caff.kr) 참조

복음화학교 142기 온라인 개강

복음화학교 142기 1단계 온라인 유튜브 수업(비공개)에 초대합니다 / 문의(수강신청): 02)2096-0410, 0411 새천년복음화사도직협의회 복음화학교 교육국
때: 1월11일(월) 14시·1월14일(목) 19시

돈보스코 직업전문학교 학생 모집

내용: 기계가공, CAD·CAM, 인성교육
때: 2월~12월(2월 예비학교) / 대상: 15세 이상 남자
최근 5년 평균취업률 89.2% / 문의: 02)828-3600
혜택: 교육비·기숙사 무료, 수강 지급

커피바리스타 교육((사)하랑·가톨릭바리스타협회)

교육내용: 커피의 전 과정(에스프레소·라떼아트·홈바리스타·창업·로스팅·자격증(주1회·12주))

문의: 010-9040-8306(http://club.catholic.or.kr/barista)

담당: 이정훈 신부(coffee master)

평신도를 위한 기도훈련-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주제: 일상 삶에서 하느님 만나기 / 회비: 7만원
대상: 기도하고 싶으나 방법을 모르는 신자
때: 1월26일부터 매주(화) 10시30분~19시40분(총6회)
곳: 사랑의 힘 빌딩 5층(전철 2·5호선 영등포구청역 4번 출구, 5번)
1월21일까지 접수 / 문의(접수): 02)333-9898 한국CLC

가톨릭대학교 문화영성대학원 신입생 2차 모집

문화영성학 석사학위과정(5학기)
모집전공: 문화영성전공, 사목영성전공
곳: 성의교정(서초구 반포대로 222)
모집기간: 1월15일(금)까지 / 면접일: 1월22일(금) 예정
문의: 02)2258-7814(http://gcs.catholic.ac.kr)

예수회 특별 강자 가톨릭 신앙과 영성(예수회센터)

강사: 주원준 박사 및 예수회 사제·수사(김정택·조인영·송봉모·정제천·전주희·김우중)
때, 곳: 3월9일부터 매일 둘째·넷째(화) 10시~11시55분(총7회), 예수회센터 3층 성당
이 밖의 다양한 강좌에 관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문의(접수): 02)3276-7733(http://center.jesuits.kr)

서강대학교 게임·평생교육원 멀티미디어학위 과정

게임 개발, 웹툰 작가의 꿈을 이루십시오
모집분야: 게임그래픽·만화애니메이션, 게임 개발
수능 성적과 관계없이 고졸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 지원 가능,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으로 서강대학교 총장명의 학위(미디어공학사) 수여
본교 홈페이지(https://www.soganggame.ac.kr) 입학 사이트 참조 / 문의: 02)705-8678, 02)705-8218

마리아학교 수강자 모집

내용: 마리아론 일체와 33일 봉헌기도
회비: 16만원 / 문의(접수): 010-9620-4820, 02)774-0448
계좌: 우리 1006-301-276411 티없으신성심 / 분납 가능

낮반	3월2일~7월27일	14시~16시	가톨릭회관 205호
저녁반	매주(화)	19시~21시	가톨릭회 318-2호

가톨릭교리신학원 신입생 모집

가톨릭 신학의 체계적 교육 / 접수: 1월19일(화)까지
문의: 02)747-8501(ci.catholic.ac.kr)

교리교육 학과	(월~금) 주간(2년)	세례 3년 이상 견진자 만 70세 미만, 고졸 이상 선교사(교리교사) 자격증 수여
종교교육 학과	(월~금) 야간(2년)	
신학심화 과정	(화~목) 주간(1년)	교리·종교학과 졸업생, 본원 통신과정 졸업생, 만 70세 미만, 고졸 이상

국악성가연구소 수강생 모집 / 문의: 02)558-2004

국악성가배우터	매주(수) 14시~15시30분 / 무료 강좌
국악성가 반주창곡	매주(수) 16시 초급, 매주(목) 14시 중급·15시30분 고급
솔리스트 양성과정	매주(목) 19시
시니어아카데미 지도자과정	매주(화) 11시~16시
국악성가지도자 양성과정	마지막주(토) 13시~18시(월1회)
국악성가지도자 양성과정	1월10일부터 첫째주(일) 17시~20시(월1회) / 강수근 신부 직장
국악성가연구소 월례기도	매일 둘째주(토) 14시

모집

예수성심전교수도회재속(친교회) 회원 모집

예수성심의 사랑 안에서 복음적 삶을 살고자 하는 교우님 / 문의: 010-8735-4889

미사

한국외방선교회 후원회 미사 / 문의: 02)3673-2525

때, 곳: 1월6일(수) 14시,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 소성당

인내

자기돌봄명상(서울포교베네딕도고척상담센터)

문의(접수): 010-6388-2665 최 막달레나 수녀

제주도 관광

제주운전기사사도회에서 가족, 효도, 단체관광, 성지안내차량, 호텔, 팬션 예약 가능
문의: 064)758-6476, 010-4566-6476

카리타스 알코올회복센터 / 문의: 02)521-2364

가족이 술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알코올 중독 회복을 위한 주·야간재활 교육 및 의존자 가족교육과 자녀모임 상시 운영
치료재활 여성반 신규 개설-매주(수) 19시
때: 주·야간 운영시간(월~금) 9시~17시, (화~수) 19시~21시

진애인 가족치료연구소

곳: 명동 / 02)587-9207(http://jinaein.com) 토요상담 가능

심층적 자기이해와 가족관계 성장	1월19일~3월23일 매주(화) 오전 10시~12시(10주)
전문심리치료	가족(부부·자녀), 불안, 우울, 분노, 대인관계문제

전·진·상 영성심리상담소 / 문의: 02)726-0700

AMR 명상심리치료	내면아이 치유, 분노조절 외 청소년 및 성인 대상(상시)
수지예니어그램	자기본질 찾기 및 자기인식을 위한 교육(상시)
의식성장을 위한 인문학 프로그램 '가치야 놀자'	개인, 가족(청소년), 소규모 팀(상시)
영어·불어성경	3월 첫째주(금·토) 개강

유관단체 알림

햇살 학부모 상담전화(햇살사목센터)

자녀문제로 고민하는 학부모님의 상담을 받습니다
운영시간: 매주(월~목) 10시~13시 / 상담전화: 02)744-0841

직원모집

서울대교구 특수사목사제관 시설관리 직원 모집

대상: 세례받은 분, 도시가스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자 2급, 운전면허자격증 소지자 / 분야: 시설관리 0명(계약직)
추후 정규직 전환 가능 /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지원업무 기재),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본당 발급) 각 1부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해당자 개별 통보)
우편(우 04537, 서울시 중구 명동길74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무처) 및 이메일(aoinsa@seoul.catholic.kr) 접수
1월5일(화) 도착분에 한함 / 이메일 문의

음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시어

바오로딸 수녀들의 기도노래

성바오로딸수도회 노래
바오로딸 | 56분 31초 | 1만3천원
문의: 02)944-0944

‘바오로딸 수녀들의 기도 노래 시리즈’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시어>가 나왔다. <주님 사랑해요>(2010), <하늘의 사랑을 그대에게>(2015), <당신 날개 펼치소서>(2018)에 이어 네 번째인 이 음반에는 하느님 안에서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수녀들의 기도와 찬미가 담겨 있다.

신간



주 베드로 신부와 함께 공부하는 마르코 복음서

주수옥 지음
으뜸사랑 | 332쪽 | 2만원
문의: 02)3663-7181

홀로 머무는 시간이 많아진 코로나19 바이러스 시대에, 마르코 복음서 한 구절 한 구절을 깊이 읽어보며 예수님의 시선으로 하느님을 바라보고, 자신과 이웃을 돌아본다. 복음적 식별과 실천을 익히면서 기도하는 영적 수련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신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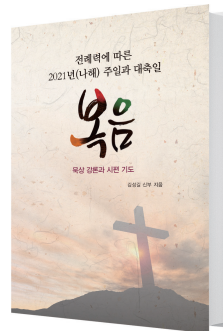


팬데믹과 한국가톨릭교회

한국가톨릭문화연구원
기쁜소식 | 232쪽 | 1만4천원
문의: 02)762-1194

이 책은 변화하는 우리 사회의 현 상황을 통해 미래를 전망하고자 하는 시대의 지향을 담고 있다.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변화들이 팬데믹이라는 상황과 맞물려 더욱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오늘, 시대의 아픔과 고통에 교회는 어떤 역할로서 사람들 사이에서 존재해야 하는지 살펴본다.

신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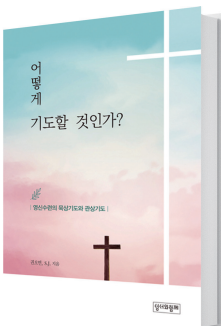


복음

김성길 지음
기쁜소식 | 388쪽 | 1만8천원
문의: 02)762-1194

의정부교구 김성길 신부가 2021년 주일과 대축일 복음을 바탕으로 강론집을 펴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신앙 환경이 비대면으로 바뀌고 있는 요즘 복음과 묵상기도, 시편으로 이루어진 이 책이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복음을 읽고 말씀 나눔을 하는데 마중물로 쓰이길 바란다.

신간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영신수련의 묵상기도와 관상기도

권오면 지음
성서와함께 | 252쪽 | 1만5천원
문의: 02)822-0125

‘기도’는 신앙인들이 하느님을 만나고 소통하며 일치하는 ‘길’이다. 모든 기도가 하느님을 향하지만, 그 목적지를 향해 가는 길은 여럿일 수 있기에 기도 방법도 다양하다. 이나시오 성인의 ‘영신수련’은 그 여러 갈래 길 중 하나이다. 저자는 우리를 그 ‘영신수련’의 길로 안내한다.

신간



길 진리 생명 해설성경(신약편)

엄철호 편역
성바오로출판사 | 1048쪽 | 3만8천원
문의: 02)945-2972, 010-2572-1365

길, 진리, 생명의 해설은 교의적, 성서학적, 전례적 해설로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진리, 성서학적 해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영성적, 신학적 해설), 어떻게 하느님과 일치할 것인가(생명, 전례적 해설)라고 하는 세 가지 차원의 성서 독법을 제공한다.

2021년도 본당 사목 지침

“당신이 천주교인이오?”

2021년 서울대교구는 “복음의 기쁨을 증거하는 교구 공동체”라는 사목 목표를 지니고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마르 16,15)라는 성경 말씀을 간직합니다. 이에 발맞추어 올해 명동성당은 사목 목표를 기억하는 공동체, 기도하는 공동체, 선교하는 공동체로 정하였고, 이를 통해 복음의 기쁨을 증거하는 본당 공동체가 되고자 합니다.

1. 기억하는 공동체

2021년은 ‘성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회년(2020. 11. 29~2021. 11. 27)’으로 선포된 해입니다. 회년 동안 ‘전대사 수여 순례지’로 지정된 명동성당은 지하 성전에 성 김대건 신부님의 유해를 모시고, 법의인류학과 해부학의 기술을 통해 실제 모습에 가장 가깝게 복원된 김대건 신부님의 흉상을 명동성당 광장에 전시함으로써 200년 전 성 김대건 신부님의 생애를 ‘기억’해봅니다. 또한 천주교 서울 순례길에 속해 있는 ‘성 김대건 신부님 치명 순교길 순례’를 통하여 선조들의 신앙의 지혜를 품을 수 있는 발자취들을 따라가며 성 김대건 신부님의 ‘기억’들을 모아봅니다. 그리고 “당신이 천주교인이오?”라는 성년 표어를 통해 현대를 사는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으면 합니다.

2. 기도하는 공동체

2020년 우리 교회는 전 세계를 뒤흔든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 신앙 생활의 핵심, 즉 ‘성사생활’이 제한됨에 따라 신자들은 해갈되기 어려운 ‘영적 목마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성사’가 언제든 다시 중단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불안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란 하느님과의 보이지 않는 지속적인 연결입니다. 이를 통해서 신앙인은 성덕의 길로 나아가고 교회는 성장합니다. 따라서 ‘기도의 삶’은 성당과의 거리 혹은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이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명동성당은 비대면 상황에서도 신자들이 흔들림 없이 확실하고도 향구한 신앙생활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본당에서 발행한 ‘가정기도문’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021년 함께 기도함으로써 “저의 기도 당신 면전의 분향으로 여기시고 저의 손 들어 올리니 저녁 제물로 여겨 주소서.”(시편 141,2)하는 시편 말씀의 모습이 명동성당 모든 분들의 가정 안에서 항상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3. 선교하는 공동체

교회 사명의 본질은 ‘선교’입니다. 따라서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마르 16,15)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모두는 온 세상에 복음의 기쁨 소식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복음 선포’의 삶은 최종적으로 구체적인 행동을 통하여 구현되는 것이기에, 특별히 명동성당 공동체 모두는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 모두 ‘복음 선포’의 사도적 사명을 가지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하나가 ‘복음 선포’에 합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명동성당은 2021년을 지내며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마태 28,19-20)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최우선에 두고 예비자 교리 및 신앙교육에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2021년에 명동성당 공동체는 교구의 본당이라는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교구를 대표하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모범을 보이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또한 명동성당 공동체는 어려운 시기를 지내면서도 희망의 씨앗을 잃지 않은 교구 공동체의 모습을 따라, 그 희망의 씨앗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생명의 싹을 틔울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들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 김대건 신부님 탄생 200주년 회년’을 지내며 당시 김대건 신부님과 신자들 사이에서 발견되는 목자와 신자 간의 두터운 사랑이 우리 명동성당 공동체 안에서 발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주교좌 명동대성당
주임신부 조 학 문 (바오로)



774-1784(☎)
753-1784(FAX)

본당 연방회
010-6375-1784

진주교시울대교구 주교좌명동대성당

주 임 조학문(바 오 로) 신부
수석부주임 이길재(베 드 로) 신부
부 주 임 손태진(바 오 로) 신부
부 주 임 심승우(마르티노) 신부
부 주 임 유영주(세례자요한) 신부
보좌 김주신(멜 키 올) 신부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미사 참례 지침

12월 8일(화)부터 3주간 비대면을 목적으로 영상 제작과 송출을 위한 참여 인원을 '수도자·명동 교적자에 한해 15명으로 제한'합니다.

- 사무실 내방 접수(09:00~17:00)만 가능합니다.
- 전화 문의 시 신청 가능하였어도 선착순 내방으로 접수를 받기 때문에 사무실 도착하셨을 때 원하시는 미사의 참석 신청이 불가할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및 온라인 신청 불가)
- 평일미사 참석은 일주일에 한 번만 할 수 있습니다.
- 평일과 주일, 미사 참석을 사전 접수하신 분들께서는 미사 시작 10분 전까지 입당하셔야 합니다.
- 평일미사 참석 신청은 '화요일부터' 수요일 오전 7시 미사부터 그 다음 주 화요일 미사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하고, 주일미사 참석 신청은 '목요일부터 선착순으로' 접수합니다.

◎ 1월 예비신자 교리반

명동대성당에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6개월 과정의 교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으로 인해 1월 3일(주일)로 예정됐던 예비신자 환영식이 취소되었습니다. 이에 1월 3일(주일) 오전 10시부터 직접 내방 접수로 교리반 신청을 받으며, 코로나19 확산 동향에 따라 비대면 온라인 화상 수업(Zoom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오니 이 점 양지하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리반	시 간	강 사
목요반	오후 7:30	손태진(바오로) 신부
토요반	오후 4:00	임 마리아 수녀

- ※2개 반 중 택일하여 신청, 각 반 50명씩 선착순 접수
- ※교리반 접수 장소 : 본당 사무실 건물 2층 선교부실
- ※접수 시 준비사항 : 등록비 1만원, 명함판 사진 1매

◎ 성체현시·강복 : 1월 7일(목) 오후 6시 / 대성전

◎ 2020년도 사목협의회 제 단체 정기 감사

본당 사목협의회 제 단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기 감사를 '비대면으로 실시'하오니 결산 자료를 구비하시어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대상 : 본당 모든 단체 (※자체 운영 단체도 포함)

·제출서류 : ① 수입지출 현황 명세서

② 장부 사진(19년 12월 & 20년 12월)

③ 통장 사진(19년 12월 & 20년 12월)

·제출기한 : 1월 17일(주일)까지

·제 출 처 : psw0424@hanmail.net

◎ 본당 홈페이지를 자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확산 동향에 따라 주보에 안내된 내용들은 발행일 이후 급히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께서는 본당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자주 확인해 주시고, 홈페이지 하단 유튜브 바로가기 배너를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미사를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1년도 교무금 책정 및 납입

어려운시 중에도 2020년 한 해 동안 정성껏 교무금을 봉헌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직 정산하지 못한 분들은 가능하신대로 교무금을 납부해 주십시오. 이어 2021년도 교무금 책정을 하시는 분들께는 본당 신년 달력과 가정기도문 책자를 드립니다.

◎ 명동대성당 미화원 모집

·대상 : 세례 받은 지 3년 이상 된 신자로서

청소 담당계약직 미화원 1명

·서류 : ① 천주교 서울대교구 본당 입사지원서

(☞ 가톨릭인터넷 굿뉴스에서 다운로드)

②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 타 교구 신자는 '주임사제추천서'로 대체)

③ 교적증명서

·절차 :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 (합격자 개별 통보)

·접수 : 1월 17일(주일) 오후 6시까지

본당 사무실 방문 및 우편 접수

※우편접수는 1월 17일(주일) 오후 6시 도착분에 한함.

※전화문의는 정중히 사양합니다.

◎ 12월 세례자 감사예물

지난 12월 세례성사를 받으신 분들께서 감사예물로 2,290,000원을 봉헌해 주셨습니다.

《 우리들의 정성 》

- 교무금 (12/21-12/27).....64,932,130
- 구유예물 (12/21-12/27).....9,983,000
- 주님 성탄 대축일 헌금.....1,730,000
-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 헌금...2,395,000
- 감사헌금 (12/21-12/27).....9,932,000

고 니콜라오 / 김 가브리엘라 / 김 다니엘
김 라파엘라 / 김 마리스텔라 / 김 에스테르
박 마리아 / 박 헬레나 / 백 안나
오 젤뚜르다 / 오 헬레나 / 우 안드레아
이 로사리아 / 이 마리맥킬름 / 이 미카엘라
이 비리시다 / 이 아네스 / 이 아우구스티노
이 헬레나 / 임 사무엘 / 장 크리스티나
장 파비올라 / 전 마리아나 / 지 소피아
진 크리스티나 / 차 실비아 / 최 로사
최 세실리아 / 최 이냐시오 / 현 베로니카
익명(3) / 가톨릭교리교육 피앗